독자투고

# 부로일러사료에 관한 이야기

## **생산비 절감방안을 중심으로**

박 돈 식
(이리시 주현동 3)

부로일러를 경영하는 일원으로서 사료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문제, 또는 사료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일고한다는 것을 부로일러의 생산 비중에는 절반이 넘는 금액이 사료대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사육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료를 절약 내지는 그 사료의 효율(사료의 경제적인 이용도)을 개선할 수 있으므로써 사료비의 절감으로 하여금 다만 얼마만이라도 생산비를 절하시켜 보려는데에 그 의도가 있을 것이다. 또한 부로일러의 생산분야에 있어서도 사료비가 점유하고 있는 생산비의 비중이 무려 과반선을 상회한다는 것이 사실이란 다면 부로 일러에 동등한 사료량의 급여로서 보다 많은 생체중을 얻어야 겠다는 기대도 역시 사료의 경제적인 이용방안(사료효율의 개선)에서나 사료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닌가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자리에서는 사료의 문제에 관하여 여사한 수치(數値)라던가 시험의 결과에 앞서 그 몇가지 상황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 1. 사료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기본 조건

#### (1) 사육 품종의 선택에서

부로 일러는 일반적으로 일시에 대군을 수용하는 사양 방식이 통례인 만큼 첫째는 이러한 조건에 대하여 적응성이 형성되어 있는 품종이라야겠지만 이는 곧 카니발리즘의 유발이 없고 발육상태에서도 되도록 우열의 차가 적어야 할 것은 물론 형질상으로 발육도가 높은 것일수록 우량품종이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이 보다도 모든 형질에서 더욱 진보되어 있는 것, 즉 효율의 개선에 순응이 되어질 부로일러라면 발육도에 있어서나 사료의 섭취량에 있어서 그리고 산육능력에서도 무엇보다 제일성(齊一性)을 가지고 일는 품종일 것이 요망된다. 그래서 이들은 여타 부로일러들과 동등한 사료의 섭취량이면서도 고르게 자라고 보다 높은 증체율을 나타내어 사료의 효율적인 이용이 이룩되도록 실질적으로 호응이 되어지는 품종이어야 할 것이 기대된다.

### (2) 영양의 개선으로서

부로일러를 육성함에 있어 카로리·단백비가 이상적으로 조성된 고에너지·고단백사료, 즉 고단위사료를 급여해야 된다는 것은 부로일러에 그 만큼 건강을 유지시켜 준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생존율에서나 특히 성장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발현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고단위 사료를 이용해 본 사양가들에게는 다 같이 공감이 가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로일러의 영양에 대한 배려는 사료의 효율과도 불가분의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인 즉 이래서 영양의 개선에 대한 실제에 있어서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것이 있는 바는 아니지만 무기물이나 비타민 등을 급여하여 영양의 개선에 주의를 경주했을 때 부로일러는 건강이나 성장면에서 또는 증체량에서 보다 효율적인 성과가 일어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이 밖에 부로일러의 사료에는 동물성 유지, 혹은 항생제 등을 첨가하는 영양의 개선방법도 있을 것이며 수용제로서도 그 개선의 일각을 담당하는 등 여러가지 방도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사료의 형태로서도 영양의 개선에 대하여 일련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알(粒)이 굵은 사료에는 모래의 급여가 필요하듯이 (단 모래가 영양분은 아니다) 모래는 부로일러의 조위에 들어가서 사람인 경우의 이(齒)의 역할을 하여 소화를 도와준다는 의미에는 부로일러가 여러가지 영양분을 더욱 많이 섭취할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만 생각하더라도 영양의 개선이 이룩되는 정도에 따라서는 사료의 효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고려되어야 할 점은 첨가물을 과중시키는 영양의 개선책으로만 너무 치우칠 수도 없다는 이야기의 일면에는 부로일러의 육성 및 생산에서 그 가격형성(生產費)에 차질이 초래되는 것이 아닐가 할 때 이는 경영의 조건과도 부합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육인들은 각자에 처해 있는 생산비의 구성 여건은 물론 사료비로 기인되는 부로일러의 경제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가해져야 할 것이다.

### (3) 환경으로서도 사료효율은 달라진다

부로일러의 사육 환경은 더 말할 것 없이 계사의 구조와 이에 수반되는 구비 조건이 되겠는데 부로일러의 환경조건에서 첫째 온도 습도를 기준에 맞춰 적정하게 조정해주어야 된다는 것은 필요 불가결의 조건 환기문제는 밀사에 치우칠 경향이 농후한 부로일러의 사양에서는 특히 상식적인 것 더욱 수용밀도에 대하여는 과도한 육심(密飼)을 버리는 적정한 수수의 수용이라야 비로소 사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할 것이며 아울러 부로일러의 사양방법과 합리적인 경영의 자세도 갖추어졌다고 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온도와 습도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 사육환경에서는 부로일러가 그 만큼 절대적인 건강의 보장을 받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환기가 잘 되고 있는 신선한 계사에서는 다른 일반 가축들에 비해서 2~3배나 더 많은 산소의 요구율을 가지고 있다는 부로일러들에 대하여 더욱 더 빠른 발육과 증체를 약속해 줄 수 있는 것이다.

## 2. 사료의 경제적 이용방안

### (1) 사료의 형태와 기호성으로서

부로일러의 사료는 대개가 시판되어 있는 완전배합사료에 의탁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들 사료의 형태를 살펴보면,

1. 입상이(粒狀餌=그레인)
2. 분상이(紛狀餌=맛슈)
3. 입분혼합이(粒粉混合餌=스크랫취 맛슈)
4. 고형사료(固型飼料=펠렛트) 등등이라 하겠으며 맛슈 계통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사료라고 지적할 수 있는데 이들은 그 어느 종류의 사료에서나 형태에서도 굵은 것 부터가

부로일러들이 즐겨 먹는 순서가 된다. 이 밖에 기호성을 형성해준다는 요인들로서는 수분의 함량, 맛, 냄새, 색소등이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사료를 질과 양의 면에서 부로일러들에 마음껏 채식토록 하여 주기 위해서는 그의 형태나 배합된 내용물 나아가서는 사료의 순도(純度) 및 특징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각기 부로일러의 사양상황에 적중되는 사료를 선정, 급여하므로써 영양이나 기호에서 그리고 효율의 개선에서 기대이상의 좋은 성과를 걷을수 있도록 주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잠간 형태와 품질이 다른 사료로써 부로일러의 급이에 급전환(異質飼料의 變更) 했을 때의 결과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부로일러에 형질이 다른 사료를 갑자기 변경하면 그들은 맨 먼저 교체된 사료의 섭취량에서 감소되는 현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곧 부로일러가 채식한 사료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소화가 되어가는 것인데 사료를 급변했을 때는 이 사료를 소화시키는데 필요한 새로운 효소가 형성될 때까지는 부로일러가 순조롭지 못한 소화 현상을 일으킨다는데에 그 까닭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료를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적어도 6~7일간의 소요로서 서서히 전환을 시켜 나가는 것이 무리가 없는 옳은 방법이 되는 것이다. 또한 사료의 급변으로 부로일러에 그 만큼 소화의 지장을 준다는 것은 설사 그들이 종전과 다름 없는 사료량을 섭취했다 하더라도 소화율은 나빠지는 것이며 이러한 관계로 영양의 섭취도 그 만큼 적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연히 증체에도 감소의 결과가 나타날 수 밖에 없으리라는 것은 일목요연한 현상일 것이다.

이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료의 효율에도 저하 현상을 빚어주는 것이 되고 보면 사료의 변경요령과 방법을 무작정 전환한다는 것은 부로일러의 육성에서는 한 갖 증체를 지연 내지는 감소시켜 준다는 결론이 있을 뿐인 것이다.

### (2) 자, 웅의 분리 사양으로서

부로일러에 있어서 그 자·웅은 각기 영양의 요구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과 중추단계(대략 5주령 이후)에 접어들면서 부터 웅에 비해 ♀의 증체가 현저하게 빨라진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사계의 연구가들에 의해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이와 같은 자·웅의 차이 조건을 이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육성을 꾀하고 사료의 경제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이들 자·웅을 각기 분리 수용하고 각 육성구간에 적정한 사료를 급여하여 줄 때 사료의 소비량에서나 영양의 개선면에서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가일층 주효한 부로일러의 육성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분리 사양에 대한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초생추의 감별에서 부터라기 보다는 (초생추시절인 30일령 이전에는 전술한 자웅간의 갖가지 차이점이 그다지 크게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은 자웅을 외모나 형체로 분류할 수 있는 중추단계에 들어가서 실시하더라도 무방할 것이며, 오히려 간편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래서 자·웅분리 사양의 실행으로 하여금 사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경우에는 육성된 부로일러에서도 혼합 사육한 부로일러보다는 의외로 풍부한 생체량과 품질이 우수한 계체가 얻어지는 것이 아닐가도 관찰해 볼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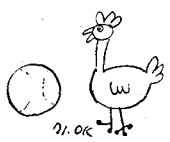
### (3) 급여량, 급이 방법으로서

부로일러는 대군사육에 대처하는 성력화의 일환으로서 거의 모두가 의사에 부단 급이 방식을 택하고 있는 사양 방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부단 급이방식은 곧 무제한급이가 되는 것이니 만큼 각 개체가 두루 충분한 양의 사료를 자유롭게 채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증체에도 쉬지 않고 박차를 가해줄 것이기에 제일 무난한 급이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무제한으로 인하여 욕심에 넘치는 채식으로 말미암아 식체증을 일으키는 개체가 많다든가 필요 이상량을 섭취하는 부로일러가 적지 않을 것이니 이러한 계군으로 부터는 사료의 낭비를 막는 의미에서 개체들을 여지없이

발군하여 별도 수용의 방법으로서 급이 사료의 제한과 절약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급이기의 형태나 성능의 결함은 개조되어서 사료를 헤쳐내는 손실을 막을 것이며 파손된 급이기는 즉각 보수하여 단 1g 씩이라도 새어나가는 사료의 허실을 방지하는 철저한 급이관리를 한다. 부로일러가 안락한 자세로서 사료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도 간접적이나마 사료를 절약할 수 있는 첩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부로일러의 제한 급이량에 대하여 초생추 시절에서는 어느 급이방법을 택하더라도 사료의 소비에 있어서 양적으로 대차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그냥 무제한급이를 한다지만 대체적으로 5주령 이후의 육성기에 들어가서는 각 개체에 1일 사료급여량을 그때 그때의 사육일령의 2배량, 즉 30일령에는 60g, 35일령에는 70g으로 한정시키는 제한급이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료는 반드시 고단위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급이방법은 부단급이로 하되 아침에 책정한 시간에 매일 같이 일시에 급여한다. 55일령 이후의 육성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1일 급여량을 110~120g 한도로 제한하는 급이 방법이되 (부로일러가 요구하는대로 무제한 방치한다면 일령의 2배량에 약 2할 가산분은 더 섭취하는 듯) 이는 반드시 각기 사육하는 부로일러의 표준된 중체량과 끊임없는 대조 아래서 실효가 없는 가운데 실시되어야 의의가 있을 것이다 총국적으로 이러한 방법은 어디까지나 궁여지책에 불가하리만큼 권장할 만한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사료의 요구량은 많은 데 부로일러의 시장 유통조건이 불리한 계절(특히 겨울)에서 최소한의 경제적 보전을 위하여 또는 사료비를 절감시켜야겠다는 궁극적인 방법으로서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이기를 바라며 맺는다. □□




협성가축약품공사
가축예방약·치료제·사료첨가제
소독약 기타 일체 총판
서울 청량리역전 오스카극장앞
(92) 7779

협성가축병원
가금진료전문
서울 청량리역전 오스카극장앞
(92) 7779